



## 어머니주일 찬양제

강예경 집사

지난 5월 10일(주일)에는 전교인들이 모여 어머니주일을 기념하고,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각 기관별 대항 어머니날 찬양제를 가졌습니다. 웨마 찬양팀과 황동준 집사님의 찬양 인도로 시작된 찬양제는 한 팀씩 나와 부르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엔 충분하였습니다. 올해의 심사위원이신 이영길 목사님, 박진욱 집사님, 조유미 집사님께서서는 각 기관/구역의 찬양에 감동하고 흥이 무르익어가는 중에도 무척이나 고심하시는 모습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그냥 심사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도 준비되어 있었기에 상 받을 팀을 선정하는 어려움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력상은 한마음으로 겸허하게 찬양드린 남서 구역에게, 인기상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든 구역원들이 화합하여 3세대가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 북서 구역에게 돌아갔습니다. 열 한팀의 열정적인 노래와 마음을 움직이는 가사와 온 몸으로 드리는 율동, 아이들의 진지함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순수하신 모습이 어우러져 2009년 어머니 주일을 하나님께서도 재미있게 보시고 흐뭇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 6월호차례

- ☞ 어머니주일 찬양제
- ☞ 담임목사 메시지
- ☞ 당회소식
- ☞ ECC 건축 소식
- ☞ ECC 건축 기금 골프 대회
- ☞ 푸른 보스톤 한인 교회
- ☞ 해외선교위원회
- ☞ 계직 수련회
- ☞ 전교회 आयुर्व/체육대회
- ☞ 수필-여인은 강하다!
- ☞ 집사회 소식
- ☞ 여선교회 소식
- ☞ 웨마의 밤
- ☞ 부정 수련회를 다녀와서
- ☞ 청년부 소식
- ☞ 중고등부 소식
- ☞ 애바라기 소식
- ☞ 교우 동정 및 광고
- ☞ ECC 건축을 위한 매일 기도문
- ☞ A Prayer for Healing
- ☞ KCB 갤러리



# 오, 디트로이트!

저는 지난 주일에 디트로이트 연합장로교회 담임 목사 위임예배에 설교를 청탁받아, 디트로이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현재 경제 위기라는 폭풍의 눈이 되어 있음을 잘 알고 그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는데 전혀 폭풍의 눈으로 보이질 않았습니다. 넓은 평원위에 넓게 펼쳐지는 경관을 보면서 조용하고 넓은 도시임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마중 나오신 장로님 내외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미국에 와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훌륭한 의사로서 생활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분을 뵈니 정말 미국은 기회와 자유가 주어진 넓은 세상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목사님께서 결혼주례를 마치고 저를 만

나려 오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화의 분위기는 돌변하였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GM의 파산 선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갖고 있었던 디트로이트의 이미지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이제 결코 넓고 넓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 때는 가장 넓은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가장 좁은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 아니 온 세계에 디트로이트는 외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좁다.” 한 때 “세상은 넓다”를 외쳤던 디트로이트, 이제는 “세상은 좁다”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그곳 디트로이트에서는 저는 설교 시간에 “르호봇(넓다)”를 외치고 왔습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이 바로 “넓다”를 외쳐야 할 때가 아닐까요?

## 당회 소식

당회 서기: 김문소 장로

1. 교육 위원회 부서 재조정: 4월 당회에서 기존의 교육 1부, 2부 위원회를 앞으로 교육 1부, 2부, 3부로 다음과 같이 분할하기로 하였습니다.
  - 교육 1부 위원회: 전과 같이 유년/초등주일학교, 중고등부(Youth Group) 담당(위원장: 박영철 장로)
  - 교육 2부 위원회: 청년 1부, 2부, 부부청년부 담당(위원장: 홍동욱 장로)
  - 교육 3부 위원회: 성인성경공부, 수요일여성 성경공부, 세례교육반 담당(위원장: 김명철 장로)
2. 영어 목회 (English congregation Ministry): Bethany 영어 교회가 떠났으므로, 1.5세와 2세가 모이는 현 English Night Member를 중심

- 으로 English Ministry를 9월부터 Community Center에서 시작할 예정입니다(담당: 김성현 피택 장로).
- 3. 전교인 여름 수양회는 ECC 건축과 현재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금년은 없고, 내년에 가지기로 합니다.
- 4. 청년 1부 담당 교역자인 이요한 목사님이 Gordon Connell Theological Seminary를 졸업하게 되어 앞으로 1년간(7/5/2009-7/4/2010) 본 교회에서 OPT(Optical Practical Training) program을 통해 실무를 경험하며 미국에 체류비자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 ECC 건축 소식

4월-5월중 ECC 건축이 그 어느때보다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Community Center는 외부 작업이 거의 끝났고, Holden St. 쪽에 Children's Chapel 건물은 많은 진전을 보여, 눈에 띄게 새로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옛 Parlor를 부수고, 지하에 기초 공사를 끝낸 후, 건축 구조물이 세워지면서 그 골격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지난 주에는 외벽을 구성하는 구조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따라서

아랫층과 1층의 공간들이 시각적으로 드러났고, 계단과 벽쪽 구조물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강석 건축회사는 평일 시간을 1시간씩 더 늘려 작업을 하며, 열심히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위원회는 이제 건물 내의 interior를 위한 Subcommittee를 구성하여 색상선택 등, 세심한 부분들까지 건축회사와 의논하며 일을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구조물이 다 갖추어짐에 따라 지붕을 올리는 때에 건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격려하고, 그 안전과 마지막 공사들까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Roofing Ceremony(상량식)을 6월 10일(수,오후

12:30분)에 가질 예정입니다. 이날, 친교실에 배치되어 있는 Panel에 전 교우님들의 Sign을 받아, 기념으로 그 패널을 지붕에 올리려 합니다. 아직 싸인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6/7)까지 싸인해 주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Roofing Ceremony에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 ECC건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은혜롭게, 아름답게 마무리 되어지도록 여러 교우님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CC건축기금모금 위원회>

## ECC건축기금모금 Golf 대회

안태준 강로



해마다 선교기금 모금을 시작으로 진행되었던 우리의 각종 기금마련 golf 대회가 올해에는 모자라는 건축 자금으로 인해 ECC 기금마련 Golf대회로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틀 동안의 고르지못했던 날씨로 인한 염려를 말씀히 제거해 주려는듯 경기 당일엔 화창하면서도 그리 덥지않아 그야말로 golfer들에게 있어 최상의 날씨였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시작전부터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분들로 인해 23명의 Hole Sponsors 를 구하게 되었으며 또한 많은 새로운 신진 세력들의 등장으로 우승을 점치기 힘든 대회가 되었습니다.

오후 비행기로 Detroit 으로 떠나셔야 하는 바쁜 일정속에서도 방문해주신 이영길 목사님의 기도 후 끝이어서, 챔피언조를 뒤로한채 챔피언조

(이...한...박... 조..)의 tee off을 시작으로 그렇게 golf대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주최측의 철저한 준비와 사전계획으로 golf대회는 은혜속에 마칠수 있었으며 모든 경비를 제하고도 \$10,050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Golf를 시작한지는 얼마되지 않았으나 우리의 건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해주신 부부청년 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얼마 남지않은 우리의 건축 완공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총수익: \$10,050

Hole Sponsors:

조준호, 이경환, 한문수, 이정민, 최연일, 김문소, 박한우, 천정렬, 김민준, 김은석, 장승혁, 지훈, 안태준, 김성현, 김준구, 안성완, 김세철, 방경남, 이정일, 장양술, John Park, Jeff Kim, 이영완, 손영권, 백승한 (gifts).

Champion:이 정일(+9),

A조 1등: John Park(+10), 2등:이경환(+13)

B조1등: 김성현, 2등:박한우

C조 1등: 김태수, 2등: 채진병

여자조 1등 : 박미숙, 이진화

Senior 조 1등: 오근호, 2등: 정명상

# 사랑의 씨앗 나누기 와 푸른 보스톤한인교회

김경선 장로

## Green KCB운동 시작

사회정의 위원회와 상록회에서는, 지난 5월 3일1부, 2부 예배후 두차레에 걸쳐서 Fellowship Hall 에서 200여 봉지의 사랑의 씨앗을 교우님들께 나눠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쁘게 받아 가셨고, 손수 심어 기르고, 열매 맺은 사랑을 또한 나누기로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상록회원님들이 많은 씨앗과 묘종을 (들깨, 상추, 부추, 미나리, 호박, 갯씨, 고추, 달래, 꽃씨 등) 기증해 주셨고, 여러분들의 협조로 비닐 봉지에 정성껏 포장해서 원하시는 분들에게 나눠 드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교회가 푸른 보스톤한인교회 운동 (Green KCB)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사항7가지를 선정하여 전 교회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1. 분리 수거 적극 참여
2. 스티어로폼 컵, 접시 사용 줄이기, 내 컵 들고 다니기.
3. 전기 아껴쓰기, 절전용 전구 사용
4. 물 아껴쓰기- 부엌, 화장실
5. 그로서리 플라스틱 백 안쓰기
6. 사랑의 씨앗 나누기 및 채소 기르기
7. 셀폰 및 전자 리사이클.

푸른 보스톤 한인교회 운동에 많은 교우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푸른 보스톤 한인교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7 가지**  
**SEVEN Things to do for Green KCB- 2009**

1. 분리수거 적극 참여 (Recycle papers, cans, and plastic bottles! Reduce Trash!)  
노란 리사이클 통: 종이      파란 리사이클 통: 깨끗한 캔, 병
2. 스티어로폼 컵, 접시 사용 줄이기: 내 컵 들고 다니기 (Reduce Styrofoam cup or dish: Carry your green cup!)
3. 전기 아껴 쓰기, 절전용 전구 사용 (Save electricity! Use CFL bulbs.)
4. 물 아껴쓰기 - 부엌, 화장실 (Save water!)
5. 그로서리 플라스틱 백 안쓰기 (No plastic bags! Use reusable!)
6. 사랑의 씨앗 나누기 및 채소 기르기 (Share seeds, & grow vegetables!)
7. 셀폰 및 전자 리사이클 (Recycle cell phones & batteries- NiCd only, not Alkaline!)

푸른 보스톤 한인교회 사회정의 위원회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KUSA)

# 니카라과 단기 선교(8/1-8/8)

이선영 장로

올해로 10년째 맞이하는 단기 선교사역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체험, 크고 작은 열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사역을 위해 지난 9년동안 함께 해온 Primera Iglesia와 각종 Fund로 동역해주신 노회, 대회, 교인들의 기도와 헌금,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헌신등을 통해 이 사역이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총 25명이 니카라과에 계시는 전구 선교사님, 이동훈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습니다. 교사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의료, 치과, 미용, 안경, 약

국등 수고하시는 이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월 1일부터 9일까지 행해지는 이 기간동안 모든 멤버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활성화와 우리가 만나게 될 수 많은 영혼과의 따뜻한 만남, 주님께 인도되는 만남이 되며 안전한 여행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단장 : 이선영  
총무 : 안태준  
교육팀: 김선희, 윤영태, 노준성, Ester Kim, 방수영, Horacio Valdex, 이동흠

의료팀: 강길원, 최연일, 최송자, 김경애, 채진병,  
김향인, 채수경  
약국팀: 김애리, 이명미, Gisela Valdex

치과팀: 안태준, 문영진, 윤영중, 이선영  
미용/안경: 장현숙, 이미숙, 구혜영, 문강희

## 제작수련회



해가자 참석한 제작들은 추임새를 외치며, 한 마음으로 한국 전통 가락을 즐겼습니다. 이어서, 보스톤 한국학교에서 이끄는 소고춤에 12명의 제작들이 직접 참여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우리교회 비전 선언의 첫번째인 ‘3세대가 함께 배우는 교회’에 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교육1부와 2부, 3부로 나누어져 ECC 건축 완성 후 펼쳐질 교육 프로그램 계획안들이 소개 되어졌습니다. 또한, 새롭게 시작될 English Ministry도 소개되었으며, 집사님들과 청년 1, 2부의 skit도 있었습니다.

세번째로는 “세계를 향한 교회”에 관한 것으로는 해외선교위원회와 국내선교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여년간의 우리 교회 해외선교사를 돌아보았으며, 앞으로의 방향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올해 제작수련회에서는 “첫희년 5년을 지내며”란 주제로, 본교회의 “제 2의 희년을 향한 비전 선언문”을 함께 리뷰하고, 그 비전들을 향한 앞으로의 계획들을 구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 제작들이 모여 준비해 온 위원회 별 그룹 발표를 갖고, 또 신임 집사님들의 신앙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금년에 새로 임직 받으신 서리 집사님들의 개인 소개와 자신의 신앙 여정에 관해 간략한 이야기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제작들간의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을 함께 나누 후에는 4개의 비전 선언을 한 가지, 한 가지씩 각 위원회와 부서가 준비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번째로,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의 3번째인 “한민족의 문화를 이어가는 교회”를 맡은 집사회와 보스톤 한국학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집사회에서는 몇 달동안 이 발표를 위하여 집사님들로 구성된 풍물(사물놀이)팀- ‘하늘 소리’의 흥겹고 힘찬 풍물 연주가 있었습니다. 풍물 놀이가 한참 흥을 더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정의를 이 땅에 세우가는 교회” 비전은 사회정의위원회에서 발표를 하였는데, 현재 PCUSA가 일하고 있는 사회 정의를 위한 사역들 소개와 더불어, 이 지구상의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교회 내에서 가능한 환경운동(Green KCB)에 교인들의 참여를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제작수련회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제 2의 희년을 향한 비전을 실현하고, 열매 맺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제작수련회에 발표를 위해 많은 준비와 열심을 다해주신 위원회와 부서 소속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전교인 야유회/체육대회

박민옥 집사

지난 5월 24일 (주일) 2부 예배후에는 제 5회 전교인 체육 대회가 Arnsal Park에서 있었습니다. 흐린 오전의 날씨로 마음이 불안하였으나 한 차례 지나는 소나기로 오히려 더욱 밝고 화창한 날씨가 계속 되어 참으로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이번에는 체육대회의 의미 보다는 전교인의 참여를 원활히 하기위해 여유있는 식사 후 함께 게임으로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자기 파트너를 지키느라 어떠한 쎈 공도 마다않고 몸으로 막아내는 희생정신을 보여준 “커플 피구”로, 어느쪽이 정답일까...눈치로 일관되어진 “OX게임”

으로, 역시 여성들의 과위를 5년째 당당히 보여준 “줄다리기”로, 그리고 즐거운 “장기 자랑시간”으로 모든 교인이 즐거워하며 하나가 되었던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자연이 주는 싱그러움과 함께 나누는 식사, 그리고 승패에 좌우 되지 않고 즐겁게 참여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교인들의 모습이 서로 조금씩 가까와짐을 느끼며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할 때는 또 한차례의 소낙비가 오며 무지개가 아름답게 하늘에 떠올라 그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전교인 야유회/체육대회 이야기>

# 여인은 강하다

김익옥 집사



비가 한차례 오더니, 해가 빠르게 얼굴을 내밀었다. 전교인 야유회겸 체육대회 날의 오후이고, 이해할 수 없는 전형적인 보스톤의 날씨이다. 이해 할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났다. 옥순언니도 이해 할 수 없다 했다. 여자와 남자 팀의 줄다리기에서 오년 연속 여성팀이 승리한다. 한번 두번도 아니고, 오년 연속의 여성팀의 승리이다. 남성팀을 이긴다. 이유가 무엇인가. 난 그 자리에서 힘을 보탠 남자팀의 일원이었고, 설마함 속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했다. 여성팀의 숫자가 남성팀보다 월등히 많지 않았고, 비슷한 숫자였음을 옥순언니가 증언했다. 옥순언니는 거짓말을 할줄 모른다. 봐주기는 아니지 싶다. 남성들은 있는 힘을 다하는

듯했고, 응원리더 조준호 장로님의 구령에 맞추어 당겼으며, 손바닥이 얼얼하도록 최선을 다했다. 어떤 경기이건 일단 시작되면 열 받는다. 부부간의 고스톱치기도 적절한 예다. 하긴 조장로님은, ‘이렇게 해야 집에 가서 저녁을 얻어 먹을 수 있다.’ 라고 계면쩍게 이야기 하긴 했다. 남성팀에 첩자가 있어, 주라는 힘을 딴 데다 사용했는가는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으니 알아낼 도리는 없다.

이런 저런 구차한 이유를 더 붙인다. 당김과 놓음의 조화를 잃었고, 강약의 조절은 애저녁에 없었으며, 완급의 리듬을 타지 못했는가 한다. 더우기, 힘의 집중과 분배의 적절한 조합의 묘를 살리지 못함이 치명적이었나 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이 무참한 남자팀의 패배는 힘을 모아야 할 때에 모으지 못했고, 개별의 힘이 아무리 좋다 해도 집중하지 않으면 무가치 하다는 걸 증언하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남성팀이 당연히 완승할 것이란 예측과 가설은 허망하게 무너졌고, 남성의 개별적인 힘만으로 게임의 승부가 결정 지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실히 증명되었다.

‘남편된 사람들도 이와 같이 자기 아내가 자기보다 연약한 여성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며 생명의 은총을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여기고 존경하십시오.(베드로전서 3:7)’

여성은 남성의 철팔활이라고 했다. 여성의 시계는 크기가 남성의 그것에 비해 작다. 남성은 여성보다 20~30% 정도 힘이 세단다. 이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다만, 이제, 남성은 힘의 우월감을 버려야 하고, 힘과 크기만으로 세상살기 경기에서 승리하기에는 여전히 버겁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까 한다.

우리 남자들끼리 한번 모여야겠고, 엠티 한번 가야 할까 보다. 순간으로 시간을 선택하고, 당김의 순간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머리 맞대고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거다. 아니면 차라리 연약하지만, 힘을 모을줄 아는 우리 여성들 밑에서 존경하며 공생하기를 기도하는 편이 낫다 싶기도 하다.

## 집사회 소식

김준구 집사



많은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봉사로 분주했던 5월달을 은혜롭게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5월달은 집사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행사가 5주동안 매주 있어서 한주 간격으로 그 다음 행사를 준비해야하는 벅찬 일정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역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많은 집사님들이 헌신해 주셔서 바쁜만큼 은혜로 채워진 한 달이 아니었나 뒤돌아 봅니다. 지면 관계상 수고하신 분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감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5월 첫째 주**는 집사회 봉사부 (부장 이태호 집사) 주관으로 교회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청년1,2부, 부부 청년부, 그리고 집사님들이 쓸고 닦고 문지르고하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신채로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었지 않나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5월 둘째 주**는 역시 집사회 봉사부 주관으로 어머니 주일 점심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예년과는 달리 어린이들을 위해 핫도그외에 스파게티를 준비했는데 모두 동이 나서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카레도 최고의 맛이었던 호평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날부터 재료를 준비하고 주님을 섬기듯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신 많은 남자 집사님들의 수고의 결실이었습니다.

**5월 셋째 주**는 제직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집사회 친선부 (부장 전현임 집사) 주관으로 식단 및 담당자를 새로 짜서 배포해 주시는 수고를 하였고 1부 순서에서는 신입서리 집사님들과 피택 장로님들의 신앙여정을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분들을 태어나기전부터 미리 예비하신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2부 순서에서는 집사회 풍물패인 “하늘소리”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집사님들이 약 10주간에 걸쳐 연습하신 열정을 뽐내셨고 매우 흥겨웠던 자리가 아니었나 자찬해 봅니다. 앞으로는 어린 학생부터 상록회원까지 문호를 개방하여 신규회원을 모집하고 “하늘소리” 풍물패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한민족의 문화를 이어가며 3세대가 함께 배우는 교회로서의 비전에 부응하고 선교에도 귀한 도구로 사용되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집사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월 넷째 주**는 집사회 친선부와 체육부 (부장 박진욱 집사) 주관으로 전교인 야유회 및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려 날씨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아스널 파크에는 비가 오지 않아 준비한 행사를 다 마칠수 있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먹거리를 준비하신 분, 아침 일찍부터 가서 미리 고기를 구우신 분, 게임을 준비하신 분, 진행하신 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의 도움으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많은 분들이 협력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참 흡족해 하셨을 겁니다.

**5월 다섯째 주**는 ECC 건축 기금 모금 위원회와 집사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골프대회가 있었습니다. 총35명이 참가해 주시고 29명이 건축 헌금을 해주셔서 건축헌금으로 \$10,050을 드렸습니다. 후원해 주시고 참가해 주신 분들께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사회의 6월행사 계획으로는 만두바자와 홈리스 분들을 돕는 행사를 고려중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와 후원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봅니다.

**추신:** 제직수련회때 깜박 잊고 집사회 회비 광고를 못 드렸습니다. 집사회 회비 (부부 \$50, 개인 \$30)를 집사회 회계이신 이성우 집사님께 내 주시면 집사회 일을 꾸려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마리아 여선교회 소식



1. 4월 19일(일) ECC건축 기금 모금을 위한 음식 바자를 가졌습니다. 많은 분량은 뉴욕의 도매상에서 구입했고 또 즉석 먹거리들은 여선교회원들이 손수 요리해 판매를 하여 총수익 \$ 3,388.00 의 금액을 교육관 건축기금을 위해 헌금하였습니다.
2. 4월 24(금)-25(토) 양일간에 걸친 KPW/SNE 연합

수양회 및 총회가 NY의 Stony Point Retreat Center에서 있었는데, 본교회에서 2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수양회의 특별강사로 이영숙 박사님(사단법인 좋은나무 성품학교 대표)을 모시고 “성품 혁신”이란 주제로 은혜의 시간을 가질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날에는 정기총회의 시간이 있었는데, 한미여선교회 동북대회연합회(KPW/SNE) 대회장으로 본교회의 김한나 집사가 선출/임명되어 앞으로 2년간의 임기동안 봉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회계로 홍도화 집사님이 함께 봉사를 하시겠다고, 본교회의 여선교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를 부탁드립니다

3. 5월 17일(일)에는 본교회에서 뉴잉글랜드 한인교역자 협의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오신 교역자들을 위해 저녁 만찬을 푸짐하고, 맛갈스럽게 요리하여 대접하였습니다. 그날 수고들 하신 여선교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에스더 여선교회

봉사부와 문화부에서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주일 2부 예배 후 다과와 헌화를 담당하여 수고하십니다.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애쓰시는 두 집사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5월 첫 주 토요일인 2일에는 집사회 주관으로 교회 대청소가 있었는데 저희 에스더 여선교회에서는 부엌과 창고를 담당하여 열심히 청소하였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서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보니 어찌나 기분이 상쾌했는지 모릅니다. 이 지면을 빌려서 저희 교회 교인 여러분들께 부엌과 창고에서 사용하신 물건은 꼭 제자리에 가져다 놓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신 후에는 뒷정리와 설거지를 해주시고,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하실 때에는 소속과 날짜를 써 주시고, 오

랫동안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부엌 싱크대 서랍에 펜과 메모지를 넣어 두었으니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주일로, 각기관별 찬양제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매년 저희 에스더여선교회에서 주관하는데 올해는 선교부장을 맡으신 강혜정 집사님께서 수고하셔서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구역 연락과 행사 진행을 위해서 힘써주신 강혜정 집사님 고맙습니다.

5월 29일 금요일에는 저희 에스더 여선교회 회원들의 친교시간이 있었습니다. 올 한해동안 수고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먹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토요일(30일)에는 5월 쉼마의 밤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콩나물 비빔밥을 준비해서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저녁 준비는 고문으로 애쓰시는 이 성혜 사모님과 김영순 집사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저녁 준비를 할 수 있었고, 박애리 집사님이 정성껏 준비해주신 양념장과 어우러진 맛

은 대 성공적 이었습니다. 7월에 있을 쉼마의 밤에는 시원한 국수를 대접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저녁 식사도 하시고, 찬양과 기도도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 쉐마의 밤

5월 31일(토) 3세대 찬양과 기도의 밤인 쉼마의 밤이 열렸습니다. 다 함께 3세대가 식탁에 둘러 앉아 여선교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콩나물밥)을 먹으며 친교를 나눈 후 본당에서 쉼마의 밤을 시작하였습니다. 황동준 /안은신 집사님과 청년부, 중고등부와 연합한 쉼마 찬양단의 은혜로운 찬양 시간을 가졌으며, 특별 순서로 부부청년부가 나와 찬송에 맞추어 신나는 체조(?) 찬양을 해주셨

습니다. 참석한 어린이들에게는 축복의 찬양을 통해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서 윤경문 목사님께서 “축복 받는 자” (시편 115:11-15)란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함께 드리는 중보 기도 시간에는 가족을 위한 기도, ECC 건축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니카라과 선교를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 아름다운 찬양과 더불어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 부청 수련회를 다녀와서

류승열 교우



보스톤의 4월은 유난히도 번덕스럽습니다. 한창 더워지는 듯하더니, 갑자기 다시 추워지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퍼붓는 비는 5월 화창함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조바심을 내게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부부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활발하였고, 총무로 봉사하는 저는 매주 sign up 을 받고, 회비를 걷고, 그 외의 말은 내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작하는 첫날부터 수련회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작하는 2시간 전부터 하늘에서 구멍이라도 난 듯 비가 억수로 퍼붓는 것이 아납니까? 한편으로는 참

석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걱정이 되기도 하였지만, 작년 수련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에, 내심 큰 기대를 가지고 비속에서 발길을 재촉하였습니다. 주제는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치유’ . 4월3일과 4일까지 약 60명의 부원들과 가족들이 모여 그 동안 결혼 후 남편과 아내의 자리에서, 또한 부모의 자리에서 건강한 가정의 모습들과 하나님의 섭리와 치유를 함께 배우며 이야기 하였습니다.

첫날 강의에서부터 저는 매우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사이신 조유연 목사님의 말씀에서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아내와 의견 충돌, 다툼으로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맞춰 가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했던 나에게 또 다른 방법과 함께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가르침을 받았고, 내가 그 동안 고민하고 있는 내용의 해결책 또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사소한 일에 다툼이 있었던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고, 아내를 좀 더 사랑해 주지 못하고, 좀더 이해해 주지 못했던 모습이 매우 부끄럽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저를 위해 이해해 주며, 기다려 주고, 조언을 해주었던 아내가 매우 고맙고,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크게 확신할 수 있게 된 점이 있다면 나는 매우 이기적이고 죄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섭리와 치유 가운데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동안 걸모습으로만 문제 없이 사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정

말 중요한 내용에서는 도망치고 회피하기 급급하였는데, 이제는 매 순간 가정에서 사랑을 나누며, 건강한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세워주기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더 열심히 믿고, 가정에서 조금씩 변화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 그루터기 청년 2부

류정용 교우

저희 그루터기 청년 2부는 4월 17일 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이라는 주제로 사론 수양관에서 있었던 이번 수련회에서는 현재규 강사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셨습니다. 인자한 웃음 뒤에 숨기고 계신 열정과 카리스마로, 말씀 전하시는 중에는 넘치는 은혜로 저희 그루터기 청년2부 수련회를 빛내주신 현재규 강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사를 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각자 주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에

게 부어주신 넘치는 사랑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잊지 않고 지켜 가기 위해 저희 청년2부는 오늘도 말씀묵상과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보스톤에도 여름에 들어섰습니다. 올 여름에도 날씨 만큼이나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항상 경험하며 사는 청년2부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인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도록 저희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지기 청년 1부

이예민 교우



사랑이 넘치는 청지기 청년1부는 매달 첫번째 주일에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엔 순별찬양발표회가 있었구요, 4월엔 부활절 행사와 함께 '성경구절 암송대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2009년 봄학기동안 성경공부시간에 배웠던 말씀들을 외우고 발표하는 시간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외우고 발표를 준비하는 시간들 안에서도 굉장히 은혜롭고 즐

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저희 청년부를 위해 섬기고 계신 간사님들의 시범을 시작으로 각각 순별로 앞으로 나와 6개의 성경 말씀을 한목소리 한마음으로 외우는 은혜로운 시간들을 나눴습니다. 그중, 가장 길어서 저희를 조금 애 먹인 말씀이 있었는데요~; 나중에는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가장 마음에 와닿아 지금도 저희가 자주 이야기하는 말씀을 하나 나누고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모두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위에 믿음의 방패를 붙이고 이로써 능히 악한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4-17절)



지난 4, 5월에 걸쳐 중고등부에서는 여러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4월 24-26일에는 중고등부의 일년 중 가장 큰 행사인 봄수련회가 Groton-

wood family center에서 있었습니다. 약 30여명의 학생들과 10여명의 선생님들이 참여한 아주 성공적인 수련회였습니다. 강사로는 Portland 한인교회의 Daniel Lee 전도사께서 오셔서 Brokenness라는 주제로 세번의 설교를 해주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뜨거운 설교말씀과 찬양, 기도를 통해 성령임재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농구, 축구를 비롯한 각종 운동으로 땀을 빼고, 그리고 언제나 맛있는 식사, 또한 좋은 날씨로 마지막날을 장식한 camp fire 등, 잊지 못할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련회에서 돌아온 4월 26일에는 중고등부 주최로 “Crossing” 이란 탈북자에 관한 영화상영이 있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인 LINK의 협찬으로 있던 이날 행사에 많은 학생들과 어른들이 참석하여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다시금 생각 할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월 10일 어머니주일 행사뒤 식사시간에 중고등부가 마련한 ECC fundraising 딸기 스무디 세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의 활약으로 700불이 넘는 건축헌금이 모였습니다. 그날 스무디를 사주신 많은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5월 17일에는 이번에 졸업하는 10명의 학생들을 위한 졸업예배가 있었습니다. 학부모회에서 해주신 졸업축하 케이크 커팅과 선물 증정식이 있었습니다. 졸업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5월 23일에는 Gordon College에서 Arise 주최로 보스톤 지역 중고등부 농구 토너먼트가 있었습니다. 저희 Ransom Youth Group에서는 남자 한팀과 여자 한팀이 참석했습니다. 여자팀은 전승으로 우승하였

고, 남자팀들도 잘 싸웠으나, 아쉽게도 준결승에서 탈락하였습니다. 그날 응원하여 주신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우승까지 차지한 여자팀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5월 31일 예배후에는 ECC fundraising 을 위한 2 mile 달리기 대회가 Jamaica Pond에서 있었습니다. 10여명의 학생들이 fundraising 을 해 주었고 화창한 날씨 가운데 20여명의 학생,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달리를 했습니다. 우승은 Tommy Kim, 2등은 Charlie Chung, 3 등은 Kwang Jin Ahn 이 차지하였습니다. 행사후 Mimi Kim (김영미) 선생님 댁에서 맛있는 점심을 하였습니다.

저희 중고등부에서는 이처럼 좋은 행사들을 일년에 여러차례 가지고 있습니다. 참석한 학생들은 신앙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많이 배우고 정말로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학생이 아직은 더 많습니다. 이 글에는 몇 줄로 밖에 써 있지 않은 행사들도 이를 준비하고 운영하는데는 너무도 많은 선생님들의 노고가 들어갑니다. 보스톤 지역 교회중에서 이처럼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부는 없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런 좋은 행사들에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시던 송치만 선생님께서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중고등부에서는 함께 봉사하실 선생님들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교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정한진 (John Chung) 전도사 (347-821-1294) 나 김성현 집사 (617-332-1950)에게 연락주십시오.



# 해바라기 소식

김동규 집사



해바라기들이 부쩍 자라나는 계절입니다.

지난 열달 동안 친구약 순서를 외우고, 성경을 매주 암송하고, 매주마다 새롭게 말씀을 받아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어머니주일에는 어머니, 할머니들을 위해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매주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들과도 많이 친해진 우리 해바라기들...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영상 자료와 뛰어난 연기력까지 섞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허신영, 소기범, 이요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학업을 마치고 아쉽게 해바라기 주일학교를 떠나는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풍요로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신윤경, 에스더 선생님의 사랑과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역시 ‘여름’ 하면 ‘여름성경학교’가 먼저 떠오르는 해바라기 주일학교 어린이들...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나흘에 걸쳐 ‘복음에 뿌리를 내리자’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올해는 토들러 (만2세어린이)반이 별도로 운영되며, 3세부터 5학년까지의 어린이들은 그룹으로 나누어 찬양, 율동, 공작, 말씀 등의 분반활동을 합니다.

신나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복음

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등록신청서는 어린이들에게 배부되며 각반 담임선생님께 전달해주세요.

하나님, 해바라기 주일학교를 섬기실 선생님들을 보내주세요! 본교회 활동교인이라면 누구나 해바라기 주일학교의 교사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어린이들을 섬기실 분을 모십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들의 예배와 분반공부를 참관해주시시오.

연락은 김동규 집사(617-277-2002)로 하시면 됩니다.

해바라기드림.

**Summer Vacation Bible School 2009**



**Being Rooted in the Gospel of Jesus Christ**

**When:** June 29<sup>th</sup> (Mon) — July 2<sup>nd</sup> (Thurs)  
5:00 – 8:00 PM (Dinner provided)

**Who:** 2Years to 5<sup>th</sup> Grade

**What:** Sing Along, Bible Study, Art & Craft, Dancing Time and more...

**Where:** The Korean Church of Boston  
32 Harvard Street  
Brookline, MA 02445

**To Register:** 617-739-2663



# 교우동정

1. 고현정/장선영 교우 가정에서 득녀( 유진, Eu-gene) - 4/13
2. 김효경 집사 모친 뉴욕에서 소친 - 4월 말
3. 문숙찬 권사님(최승주 집사 모친) 보스톤에서 소친 - 4/26
4. 김동규 집사님 부친 한국에서 소친 - 5월 초
5. 이창화/안소영 교우 가정에서 득남(웅규, Brian) - 4월 중
6. 차민호/신민형 교우 가정에서 득남(예성(Timothy)) - 5/22

# 광고

1. 여러분의 교회활동/행사 모습을 보고 싶으십니까?

보스톤한인교회의 사진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년전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의 어머니주일 행사 모습이라든지, 체육대회의 모습도 생생하게, 다양한 각도에서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세례식때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격 못했던 많은 순간 포착도 있습니다. 한울타리에 재기되는 대부분의 사진들이 이곳에서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방문 기대합니다.

방문지: <http://kcboston.zenfolio.com>

2. 홍보위원회-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줄이는 일환으로 뉴스레터 한울타리를 프린트물이 아닌 웹

버전으로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웹버전으로 받아보시면 모든 사진을 칼라로 보실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kcbweb@hotmail.com](mailto:kcbweb@hotmail.com)으로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금주 수요일(6월 10일) 오후 12:30분에 Roofing Ceremony를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까지 건축 기념판을 위한 싸인을 받겠습니다.
4. 6월 28일(주일)성례식때 유아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유년. 초등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VBS)가 6/29(월)-7/2(목)일 오후 5시에 열립니다.

# 알림



## 사순절 묵상집

\*우리 교인들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발간을 시작한 사순절 묵상집이 올해로 세번째 발간되었습니다. 올해 발간된 사순절 묵상집 2009년에 묵상의 글을 내주셔서 사순절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 편집될 사순절 묵상집을 위하여 금번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 것을 글로 남기셔서 원고를 홍보위원회에 보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원고 보내실 곳: [hanwbae@yahoo.com](mailto:hanwbae@yahoo.com)

# 보스톤 한인교회 ECC 건축을 위한 매일 기도문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특별한 뜻 안에서 우리를 이 곳 미국 땅 보스톤에 살게 하시며 주님을 믿는 순례자들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50여년 동안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삼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희년을 맞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어린이 예배실과 교육관 (ECC)을 건축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일찍이 솔로몬에게 “여호와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라” 하시고 선지자 학개에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고 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고 두려워하지 말찌어다.” 건축을 시작한 이래 저희에게 이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건축을 놓고 모든 교인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한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빛과 소금이 되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여 이 지역 보스톤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주춧돌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육관 건축 사업을 미쁘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와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시옵소서.

이 건축을 위하여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성령의 한없이신 역사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일하는 한사람, 한사람을 눈동자처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부족한 건축자금이 속히 모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인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사랑과 기쁨, 그리고 협력을 아끼지 않는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주시옵소서. 이 건축을 통하여 성도들의 심령과 우리 공동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성전도 이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명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 A Prayer for Healing

Let there be peace, welfare and righteousness  
in every part of the world.

Let confidence and friendship prevail  
for the good of east and west  
for the good of the needy south  
for the good of all humanity.

Let the people inspire their leaders  
helping them to seek peace by peaceful means  
helping them and urging them  
to build a better world  
a world with a home for everybody  
a world with food and work for everybody  
a world with spiritual freedom  
for everybody.

Let those who have the power of money  
be motivated by selfless compassion.  
Let money become a tool  
for the good of humankind.

Let those who have power  
deal respectfully with the resources of the planet.  
Let them respect and maintain  
the purity of the air, water, land and subsoil.  
Let them co-operate to restore  
the ecological soundness of Mother Earth.

Let trees grow up by the billions  
around the world.  
Let green life invade the deserts.

Let industry serve humanity  
and produce waste that serves nature.

Let technology respect  
the holiness of Mother Earth.

Let those who control mass media  
contribute to create mutual understanding  
contribute to create optimism and confidence.

Let ordinary people  
meet by the millions across the borders.  
Let them create a universal network  
of love and friendship.

Let billions of human beings  
co-operate to create a good future  
for their children and grandchildren.

Let us survive  
In peace and harmony with Mother Earth.

– Hagan Hasselbalch, from Earth Prayers, com-  
piled by Elizabeth J. Roberts, Elias Amidon



# KCB 갤러리 - 나누고 싶은 모습들



• 어머니 주일 집사회 오찬 접대



• 중서 4구역 건축자 접대



• NE 한인 교역자 협의회 총회 접대



• ECC 건축 현황 (6/4/2009)



• 전 교인 야유회 및 체육 대회